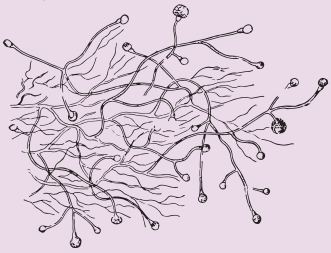
A Day in the Life of a Gardener Mycota Cohen
정원사 균 씨의 하루
보선 Bosun

2022 아르코미술관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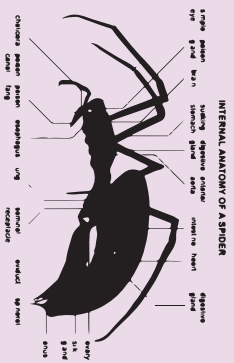
땅속 그물 이야기 *The Fable of Net in Earth*

한 마을이 정원사 균 씨를 고용했고 오늘은 균 씨의 출근 첫날이다. 균 씨는 도시에서 살다가 직장 동료가 요샌 시골이 살기 더 좋다고 말해 정원사 수업을 받고 이 외딴 마을로 이사했다.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균 씨에게 이 마을은 낯설다.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균 씨는 주로 창문으로 마을을 살핀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영역을 나눠주고 있는데, 잔디 언덕, 진흙탕, 숲, 꽃밭, 논, 밭, 정원 등 작은 마을이 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늘 한적한 모습에 이따금 동물들이 지나갈 뿐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느긋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균 씨는 불안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마을이라도 살펴야 하나 고민하며 출근일을 기다렸다. 정원사는 고용인의 의뢰 방향에 따라 정원을 설계하고 가꾼다. 이 마을엔 이미 전 정원사가 가꿔 놓은 정원이 있고 오늘 그분이 균 씨에게 정원 일을 안내할 예정이다.



잔뜩 긴장했는지 균 씨는 뒤척이다 새벽에 잠들었다. 악몽을 꿨다.

The village had hired a new gardener Mx. Mycota and today was their first day. Mx.Mycota, the gardener, had lived in a big city for years, but enrolled in a course to become a gardener after hearing a colleague talk about the benefits of living in the countryside. It was now a week into Mx. Mycota's arrival in this remote village but everything remained unfamiliar. Mx. Mycota hardly ventured outside, content to observe village life through the windows. A dirt road demarcated the different areas—grassy knoll, muddy paths, forest, fields of flowers, paddies, fields, gardens—making up the varied fabric of the small village. It was mostly tranquil, with the occasional passing animal. And yet, even though the past week was quiet and serene, a persistent anxiety had been gnawing at Mx. Mycota. They hadn't received any instructions or guidelines about what they were expected to do and what their job entailed. 'Is it okay for me to be this relaxed and unoccupied? Shouldn't I at least go explore the village?' They wondered and fretted as they waited. For i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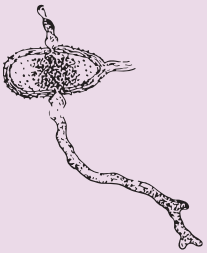


도시의 콘크리트가 파도처럼 굽이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다. 뗏목에 오르려는 타인을 날카로운 창으로 밀어내고, 침수 받지 않은 높은 건물 옥상을 사수하기 위해 가시로 벽을 세운다. 인간들의 싸움으로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열대우림은 반 이상이 사라졌으며 하늘은 노랗게 오염되었고 전 세계 야생동물의 반 이상이 죽었으며 매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동물의 사체가 쌓여 악취를 풍기지만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은 이를 맡지 못하며 더욱 높은 곳만 바라본다. 세계가 모든 정신과 물질의 합이라면, 한 존재마다 그의 세계관으로 구성한 세계 또한 다를 것이다. 우리는 대화하며 다른 이들의 세계를 어렴풋이 추측해볼 뿐이다. 이 꿈의 세계는 균 씨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균 씨는 왠지 이곳의 법칙을 따라야만 할 것 같았다. 균 씨는 낮은 곳의 비명과 높은 곳의 웃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쥐어 든다.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a gardener's job to plan, cultivate, and tend gardens according to the wishes of their client, but this village already had a garden. At least today the previous gardener, Mx. Mycota's predecessor was supposed to show Mx. Mycota the ropes.

It must have been the nerves, but Mx. Mycota tossed and turned for hours before finally drifting off in the early hours—only to have a nightmare. Urban concrete surged like a violent wave, and people floundered to survive. Others brandished spears to fend off those trying to climb up on rafts or erected walls of thorns to defend their hold on the rooftops of the few tall buildings that hadn't been flooded. Human strife filled the ocean with trash, destroyed more than half of the planet's tropical rainforest, turned the sky yellow, killed off wildlife, and caused daily natural disasters. Stacks of animal carcasses stank badly, but the people in the upper level of the hierarchy didn't care to smell it, being too busy staring up at an even higher level. If the world was the synthesis of spirit and matter,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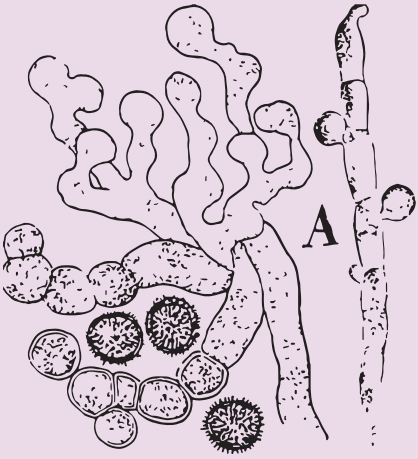
날카로운 빛이 균 씨의 눈에 쏟아졌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균 씨는 섬뜩한 불안감을 느끼며 눈을 떴다. “몇 시지?” 균 씨는 엉킨 이불에서 허둥지둥 벗어나다가 말캉한 무언가에 닿았다. 살갗 같은 촉감에 화들짝 놀라 튕겨 나가듯 일어서 자리를 살피는데 아무것도 없다. ‘꿈이었나?’ 눈곱을 떼러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는데 주먹만 한 허연 덩어리가 왼쪽 어깨 위에 붙어있다. “에? 악!” 귀신인가 싶어 거실로 나와 몸을 바람개비처럼 이리저리 힘차게 휘저었다. ‘사라졌나?’ 다시 거울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 보는데, 허연 덩어리는 영혼 따위가 아닌 질량이 있는 물질이었고, 그 이름은 버섯이었다. 균 씨는 스트레스 탓에 이상한 피부병에 걸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들러야 했지만 출근 첫날부터 지각할 수 없어 일단 출근을 준비한다. 샤워기로 몸과 함께 이 이상한 버섯도 씻긴 후 펑퍼짐한 셔츠를 걸쳤다. 버섯 탓에 한쪽 어깨만 솟아있는 것이 어색해 오른쪽 어깨에 반 정도 쓰고 남은 두루마리 휴지를 테이프로 고정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눈썹에 힘을 주고 “오케이.” 문을 열고 나선다.



individual’s world, constructed with their unique worldview must be different. All we could do was make vague guesses about the worlds of others through dialogue. It was unclear whether this dream world was Mx. Mycota’s or of someone else, but Mx. Mycota felt they should follow the laws that govern this place. They hesitated, weighing the screams down below and the laughter up high, then stooped to pick up a sword that had fallen to the floor. This caused extreme vertigo.

A sharp light pierced Mx. Mycota’s eyes. Sun sharded through the window. Mx. Mycota felt a tremor of anxiety as they opened their eyes. “What time is it?” They hurriedly untangled themselves from the bedsheets when something soft brushed against them. Something that felt like skin. Startled, Mx. Mycota jumped up and looked around to see what it could be but there was nothing. ‘Was it a dream?’ Mycota wondered as they headed to the bathroom to wash their face, only to discover a whitish mass as big as a fist on their left shoulder in the mirror.

전 정원사와 만나기로 한 정원 입구 벤치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주변을 살폈다. 이미 면접 보러 왔던 곳이지만 오늘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 화단 너머로 분홍 모자를 쓴 사람이 돼지와 산책하고 있다. 균 씨는 돼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일주일간 창밖으로 익숙히 봐왔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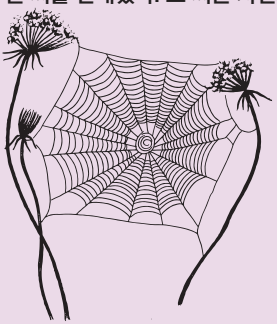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마을엔 고양이나 개 말고도 소, 돼지, 닭, 병아리 등이 자유롭게 쏘다니고 있었다. 마을 주민은 인간뿐이 아니라 비인간 동물과 식물도 함께였고 그들은 각기 다른 심장을 안고 함께 박동을 맞추며 살아가는 듯했다. 균 씨는 아직 이방인이긴 하지만 말이다. 산책하던 돼지가

"What the? Eek!" Half-convinced that the mass was a ghost, Mycota rushed out of the bathroom into the living room, jerking and shaking their body as if it were a pinwheel. 'Is it gone?' Mycota cautiously approached the mirror again, only to see that the pale blob wasn't a spirit at all, but something with a definite mass which went by the name mushroom. Mycota was convinced they must have developed a skin condition from the stress of the past few days. A trip to the doctor's seemed like the right thing to do but they just couldn't show up late on their first day, so they started getting ready for work. In the shower they washed the strange mushroom along with their body, then put on a roomy shirt. The bump on the shoulder looked quite strange, so they wadded up some toilet paper and taped it over. Then they scanned their reflection from head to toe. "Alright," Mx. Mycota glared upon the mirror and told themselves. Then, they headed out the door.

Mx. Mycota sat on a bench by the garden entrance and

멈추더니 엉덩이를 씰룩대며 흙을 판다. 사람은 돼지 곁에서 몸을 풀다가 다시 정원을 돌기 시작한다. 균 씨는 그 둘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긴장을 애써 잠재우고 있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묘한 차림의 사람이 균 씨 두 걸음 뒤까지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좋은 아침!" 균 씨는 로봇처럼 180도 휙 돌아섰다. "안녕하세요. 균 씨 맞죠? 저는 어제까지 일하던 정원사 묘예요. 오늘 인수인계해 드리려고요. 자, 따라오시죠." 아담한 체구의 묘 씨는 야무진 표정으로 균 씨를 안내했다. 묘 씨는 자신의 복주머니 가방을 뒤적이다가



멈칫하며 균 씨에게 물었다. "혹시 못 드시는 과일 있나요? 아니면 싫어하는 과일이라던가…"

"아니요, 딱히 없어요. 다 잘 먹어요. 그렇지만 신 과일은 잘 못 먹네요."

묘 씨는 입꼬리를 올리더니 블루베리를 한 주먹 꺼내 묘 씨에게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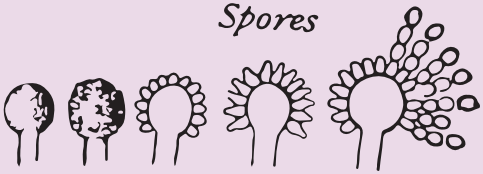
"제가 기른 블루베리예요. 한번 맛봐봐요. 또 줄게요. 또, 또."

looked around. They chewed their nails, thinking they felt more distant somehow even though they had come here for the interview. Across the flowerbed, someone in a pink hat was walking a pig. Mx. Mycota didn't bat an eye since it was now a familiar sight. Here, not only cats and dogs but cows, pigs, chickens, and chicks all roamed freely. The villagers consisted of non-human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humans, their varied pulses synchronized amid a peaceable coexistence. But of course Mx. Mycota was still an outsider. The pig stopped walking and started rooting around in the soil, wiggling its rear. Its human companion stood nearby doing some light stretches, and then the two set off for another lap around the garden. Mx. Mycota's eyes followed their movements to ignore the anxiety coursing through their body. They were so focused on the pig and the person, that they didn't realize an oddly dressed person was right behind them.

"Good morning!" Mycota did a robotic one-eighty at

"감사합니다. 싱싱해 보여요."
균 씨는 엉거주춤하게 두 손으로 받은 후 입으로 몇 알 깨물어 먹었는데 꽤 달았다. 블루베리를 한 알씩 먹으며 정원을 거닐다가 균 씨가 먼저 입을 뗐다. "저, 묘 선생님. 앞으로 제가 정원을 관리할 텐데 알아야 할 부분이 있나요? 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정원을 원하시나요?" 묘 씨는 먹던 블루베리를 꿀꺽 삼킨 후 답했다. "음.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한 알 집어 다시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저 사람 조금… 이상하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균 씨는 묘 씨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걸었다.

"그냥 보세요." 정원을 한 바퀴 도는데, 이 마을의 정원은 균 씨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상적인 정원의 모습과는 달랐다. 나뭇가지를 다듬지 않아 나무 모양은 뒤죽박죽이고, 들풀과 꽃이 사람이 걷는 길에 침범하는 것은 물론 곳곳에 고인 흙탕물엔 벌레가 떠다녔다.



this sudden greeting. "Hello there. You're Mx. Mycota, right? I'm Gardener Quee—or rather, I was the gardener here until yesterday. I've come to show you around everything you need to know here.. Follow me, please." The petite Gardener Quee walked Mx. Mycota through the garden with a canny, determined expression. As they walked, Quee started to go through their side pouch, paused, then asked, "Are you allergic to any fruit? Or is there any fruit you don't like?" "Not particularly. I eat most fruit, though I'm not a big fan of sour fruit. I don't really eat them a lot." Quee slightly lifted their mouth and handed over a fistful of blueberries to Mx. Mycota. "Grew these myself. Have a taste. I've got plenty more if you like it. Go on, go on." "Thank you. They do look fresh." Mx. Mycota awkwardly reached out their hands to accept the berries and popped a few in their mouth. They were quite sweet. The two continued walking through the garden in silence, eating blueberries. Eventually, Mycota ventured to speak: "Uh, Gardener Quee. Is there anything

넝쿨이 우거져 작은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 습한 곳엔 이끼가 덮여있기도 했다. 균 씨는 이 야생과 같은 정원을 보며 오묘한 감정이 들었다. 대충 일해도 괜찮겠다는 게으름뱅이 심보와 이걸 자신이 다 제대로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과 묘 씨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왔다. 아무 말 없이 한참 걷다가 다시 정원 입구에 도착했다. 묘 씨가 태평한 태도로 균 씨에게 물었다. “알겠나요? 이 정원이 지키고 있는 것들요.” 균 씨는 애써 불편한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모르겠는데요.” 눈치 없는 묘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정원을 예쁘게 꾸미길 바라는 이가 있고 화려하게 치장하길 바라는 이가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정원이 그저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정원은 온갖 생물이 살아가는 삶터이고, 그곳에선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정원사의 일은 하나예요. 정원의 생물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균 씨에게 전할 건 다 전했네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묘 씨는 정원 입구에

I should know as I care for this garden from here on out? What sort of garden do the villagers want?” Quee swallowed a berry and said, “Hmmm. I’d say finding a good balance.” Then went back to eating berries. ‘This person’s a bit... odd. I don’t... I don’t think I want to go near them.’ Mx. Mycota thought to himself and kept his distance, taking a step back to walk behind Quee.

“Just have a look,” Quee said. They walked around the garden, but the garden in this village was far from the ideal gardens Mx. Mycota had learned at school. Branches were left unpruned, trees and shrubberies stood in disorderly shapes, wild grass and flowers invaded the paths made for humans, and bugs floated in muddy puddles. Overgrown vines formed a mini cave, and humid places were covered in moss and lichen. Mx. Mycota began to feel profoundly disoriented by the wildness of the garden, and a mix of feelings surfaced—a sly, lazy relief that perhaps this means they could slack off at work, but also an increased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it was now up to them

세워두었던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균 씨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고, 균 씨의 몸에 버섯이 몇 개 더 자라났다. 갓이 넓적한 버섯, 대가 길쭉한 버섯 등 여러 모양의 버섯이 균 씨 등과 어깨에 올록볼록 솟아났다. 실제로 보면 무척 징그러웠을 테지만 다행히 셔츠가 가려주고 있다. 균 씨는 자기 몸에 일어난 사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도망치고 싶었고, 도저히 버섯을 보거나 만져볼 수 없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과도 같으니까. 균 씨는 반 정도 남은 근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궁리했다. 균 씨가 배운 좋은 정원이란, 정원의 주인인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가 휴식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원은 도구에 불과했다. 정원을 정원으로 살게 하라? 균 씨는 시시각각 자라나는 버섯과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서 이도 저도 움직이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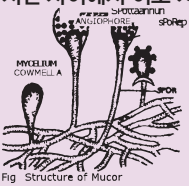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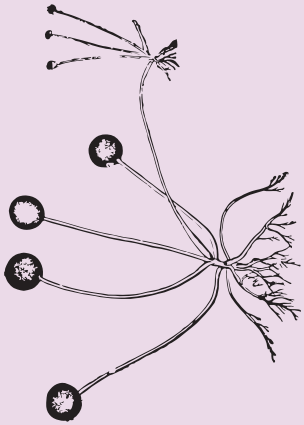


Fig Structure of Mucor

일단 사다리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균 씨가 예상한 정원사의 생활이란 매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고독하게 식물을 다듬고 길을 청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답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어떡하지.

to tend this unkemptness, which Quee obviously neglected. The two gardeners walked on without speaking until they returned at the garden entrance. Gardener Quee asked nonchalantly, "Do you see now? What this garden protects?" Mycota struggled to hide their discomfort. "I don't." The ever placid and oblivious Quee explained in a kind, patient tone: "Some folks like their garden pretty, and some like them fancy and all dolled up, but the folk here, they want the garden to live. A garden that is home to all manner of living beings and therefore has conflicts. It's down to us to mediate these conflicts and make it possible for communal living. The gardener here has only one job: to make sure no living being disappears. That's all I can pass on to you. Take good care of everything. I'll be off now." Quee jumped on a bicycle by the garden entrance and cycled away.

Mx. Mycota was left alone in the street when a few more mushrooms sprouted from their body. One had a large cap, one had a long stem, and others of various shapes and sizes



어떡하지.' 저 아래에 한 노인이 유아차를 끌며 걸어가고 있다. 균 씨의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노인이 균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리 내려와 보라고 손짓했다. 가까이에서 본 노인은 높은 곳에서 봤을 때보다 체구가 더 크고 인상이 또렷했다. "새로 오신 정원사님이신가요? 우리 아이들 좀 봐요." 균 씨는 허리를 숙여 유아차 안쪽을 바라보는데 그곳엔 인간 아이가 아닌 사과와 참외가 탐스럽게 담겨있었다. "하나 잡숴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아님 두 개." "아, 하나만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달어요. 달어요. 에헤." 균 씨는 빨간 사과를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균 씨는 다시 길을 잃었고 몸에 버섯이 몇 개 더 자라났다. 해가 저물고 있는 걸 보니 근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좀 더 버텨보기로

bloomed along Mycota's back and shoulders. It would've been a ghastly sight, but luckily the shirt hid them from view. Mycota didn't feel like what was happening to their body was real and felt an urge to flee. They couldn't bring themselves to look, let alone touch the mushrooms. For as long as they avoided it, they could deny that it was actually happening. Mx. Mycota wondered how to spend the rest of their first day on the job. They'd learned that a good garden was a garden that offered its owners—meaning its human patrons—visual pleasure, and provided a suitable space for them to rest. A garden was but an instrument. So the notion of letting the garden live on its own? Mx. Mycota stood vacantly, suspended somewhere between the blooming of mushrooms and the passing of time.

Eventually, they decided to climb up a ladder and have a think from the high perch. Mx. Mycota had pictured that a gardener's daily routine would be walking up and down ladders, tending to plants, and sweeping streets in solitude —but th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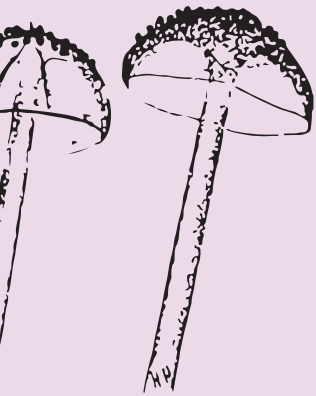
했다. 버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랐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몸이 조금 무거워진 기분이 들었다. 숨이 조금 가빠 왔다. 하늘이 노란 걸 보니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았다. 균 씨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땀이 눈을 가려 균 씨가 소매로 땀을 닦는데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얼굴 피부가 울퉁불퉁하니 사람의 피부가 아니었다. 균 씨는 작업실로 들어가 가을에 입는 작업복으로 몸을 감추었다. 머리가 멈추었다. 버섯이 우수수 솟아났다.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 옷을 포자기처럼 머리 위에 뒤집어쓰고 걸어갔다. 균 씨는 점점 더 많은 땀을 흘렸고 옷 안은 습기로 가득 차 버섯이 더 빨리 자라났다.

균 씨는 정원 안에 갇혔다. 묘 씨가 정원의 생물들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원사의 일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균 씨는 자신이 이 마을의 이방인이었음을 깨달으며, 자신은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없으며 어떤 저주에 걸려

now felt lost. ‘What to do, what to do,’ they repeated. They saw an elderly person walk past with a baby carriage. The elder must have felt Mx. Mycota’s gaze because they glanced up and gestured at Mx. Mycota to come down. Mx. Mycota noticed the elder was taller and had clearer features than they’d first thought when looking down the ladder. “Are you the new gardener then? Here, have a look at my babies.” Mx. Mycota bent down to look inside the baby carriage but found apples and Korean melons instead of a human baby. “Try one.” “I’m fine, thank you.” “Go on and take one. Or two.” “Ah, well then, just the one, thank you. I’m sure I’ll enjoy it.” “It’s sweet, it’s sweet. Ahem.” Mycota slid the red apple inside their shirt pocket.

Mx. Mycota lost their way again and more mushrooms sprouted from their body. They decided to wait it out since the sun was setting, meaning the workday would be over soon. It was hard to say how far the mushrooms had spread. Their body did feel heavier overall. Their breath quickened too.

이 정원을 위한 거름이 되는구나 싶었다. 비틀대며 걷다가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의식이 흐려져 균 씨는 자아를 찾기도 어려웠다. 균 씨에게서 자라난 버섯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균 씨의 몸을 모두 에워쌌다. 덩어리가 된 모습이 꼭 거대한 버섯 무덤처럼 보였다. 깜깜하고 축축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다. 줄기줄기 엮어진 버섯 무덤 안에는 햇빛 한 줄기 들지 못했다. 정원에 다시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미 뒤죽박죽인 정원에서 버섯 무덤 하나 생겼다고 놀랄 주민들이 아니었다. 균 씨는 눈물과 땀을 흘리며 어제 아침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흙이 될 걸 알았다면, 좀 더 하늘 위로 몸을 뻗어볼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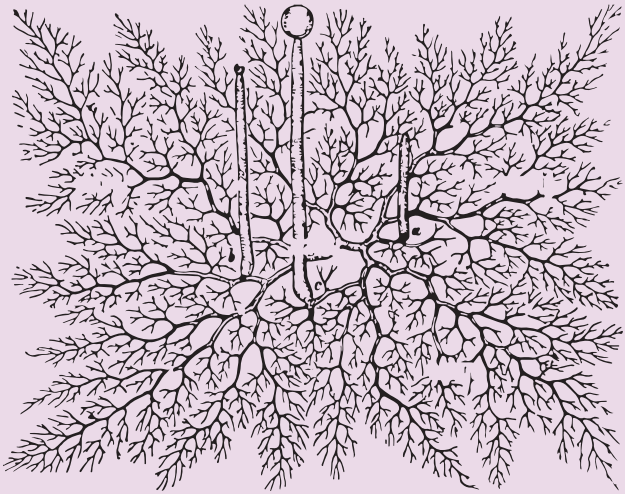
"킁킁!"

버섯 무덤을 누군가 뒤적이기 시작했다. 쩝쩝대더니 버섯의 줄기 줄기를 하나씩 풀어냈다. 아침 산책을 나온 돼지 한 마리가

The sky was ochre so they only needed to hold on a little longer. Mx. Mycota started to sweat. As they raised an arm to wipe their eyes prickled with sweat, Mx. Mycota realized something was seriously wrong. The surface of their face was bumpy, not at all like human skin. Mx. Mycota rushed to the office and changed into their autumn coveralls to hide their body. Their head froze. Mushrooms shot out every which way. Unable to keep their face exposed, Mycota covered their head with clothes and walked outside. As they became more and more drenched, the mushrooms kept growing faster under the growing humidity of clothing.

Mycota was now trapped in the garden. They recalled what Quee had said, that the gardener's job was to keep the living beings in the garden alive. Mycota realized they were a foreigner to the village and that they simply were not meant to live among the villagers, that they'd somehow been cursed to turn to compost. They staggered about before collapsing

균 씨의 셔츠 안에 있던 사과 향기를 맡고 집요하게 파헤쳤던 것이다. 버섯 무덤에 구멍이 작게 뚫리니 무덤이 허물어지는 건 금방이었다.



beneath a tree. Their consciousness had fogged over, and they could no longer place themself. The mushrooms that had sprouted over Mx. Mycota took root in the soil and swept over their entire body. The concretion resembled a giant burial mound of mushrooms. The dark and damp night passed and the morning came, but the web of mushrooms was too dense to allow sunlight in. The villagers came to take a walk around the garden. They wouldn't be surprised to see another mound of mushrooms in the already jumbled-up garden. Mx. Mycota wept and sweated, wishing they'd gone straight to a doctor the previous morning. 'If only I'd known I'd turn to soil, I would have reached further to the sky.'

Sniff sniff. Someone began rummaging through the mushrooms. There was a sound of chomping, and the strands of mushrooms began to be undone. A pig out on its morning walk had smelled the apple in Mx. Mycota's shirt pocket and was determinedly digging the mound. A small hole opened

무덤에 햇살과 바람이 들자 버섯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분홍 모자를 쓴 사람이 달려와 균 씨에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균 씨는 개운한 표정으로 말했다. “살려주세요.”

균 씨는 오늘 하루 휴가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보선

프리랜서 작가이다. 어두운 마음 안에서 작은 빛을 찾아 그려내길 좋아한다. 더 많은 존재가 덜 고통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 『적적한 공룡 만화』(2021), 『나의 비거니즘 만화』(2020), 『평범을 헤매다 별에게로』(2016)를 지었다.

up—from there it was a matter of moments until the mound collapsed. As sunlight and wind swept inside, the mushrooms disappeared like puffs of smoke. A person in a pink hat ran over to Mycota. “Are you alright?” Mycota answered with a look of relief, “Please get me out of here.”

Mx. Mycota vowed to take the entire day off.

Bosun

Bosun is a freelance writer who enjoys finding and portraying a small light in the darkness of one’s heart. She practices veganism, hoping there will be fewer lives that suffer. She is the author of *The Lonely Dinosaur Cartoon* (2021), My Veganism Cartoon (2020), and *To the Stars after Being Lost in the Ordinary* (2016).

사전워크숍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

이 글과 문장은 2022 아르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의 사전 워크숍인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네 명의 참여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는 3회의 워크숍에서 우정을 전하는 전략, 언어를 다른 감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야기를 교환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4인의 필자들은 함께 나눈 대화와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글의 전문은 티저 웹사이트와 아카이브라운지에서, 문구는 온라인 전시관 ‹균사체의 정원›의 세계 속에 등장합니다.

Pre-exhibition Workshop *Worlding-with*

The written works and phrases were produced as part of a pre-exhibition workshop titled *Worlding-with* for the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Bosun, Hannah Seo, Bora Lee-Kil, and Mina Ha, the four participants, discussed the following over three meetings: strategies for sharing friendship, methods of transforming language into other senses, and various ways of exchanging stories. After the workshops, they created written works based on their conversations and their own interests. The entire text can be found on the teaser website and ARKO Archive Lounge, and selected phrases appear in the world of the online exhibition *Mycelium Garden*.

Translated by Emily Yae Won